

도서관학 5법칙으로 본 학교도서관 운영과 개선방안

-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

A Stud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School Libraries with Viewpoint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Focused on D Elementary School Library in Busan

이 현 숙 (Hyeonsook Lee)*

이 용 재 (Yong-Jae Lee)**

< 목 차 >

I. 서론	IV.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II. 이론적 배경	V. 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
III.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VI. 결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304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심층조사를 위하여 부산의 D초등학교 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은 2016~2021년 동안의 도서관 보유, 사서교사 배치, 장서, 연간 이용, 예산, 좌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이 10.5%에 불과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사례연구에서는 랭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3법칙을 중심으로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1법칙에서는 열람방식, 입지, 이용시간, 가구, 직원의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제3법칙에서는 서가배열, 목록, 확장봉사, 도서선택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히 한 학기 한 권 읽기용 도서로 50권 이상 목본이 있는 도서가 전체 장서의 4.8%를 차지하여 불균형한 장서 구성의 문제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으로 '사서교사 배치 확대', '리모델링을 통한 독서환경 구축', '균형 잡힌 장서개발'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도서관경영, 사서교사, 랭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naging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Busan and suggest the ways to improve it with the viewpoint of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The scope of study was set as the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Busan, and the operation status of 304 elementary school libraries was analyzed. And for in-depth investigation, D elementary school library was examined as a case. The operation status of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Busan was analyzed with the analysis elements: existence of school library, placement of teacher librarian, library collection, annual use, budget, and library seats for 6 years from 2016 to 2021. As a result, especially the placement rate of full-time teacher librarians was only 10.5%, indicating that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was serious. As case study, the current state of managing D elementary school library was deeply investigated with perspectives of the first law and the third law of library science among Ranganathan's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With the first law, the investigation wa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open-shelf system, library location, library hours, furniture, and staff. With the third law, the investigation was done as the aspects of shelf arrangement, catalog, extended service, book selection. Especially, books with more than 50 copies for the program of reading one book each semester accounted for 4.8% of the total collection, showing the problem of unbalanced collectio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expanding the placement of teacher librarians', 'making better reading environment through remodeling', and 'balanced collection development' were suggested as the ways of developing school libraries.

KEYWORDS: School Library, Library Management, Teacher Librarian, Ranganathan,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hslee09217@gmail.com / ISNI 0000 0005 0628 7310)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yj5384@pusan.ac.kr / ISNI 0000 0004 6472 8447)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2년 2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3월 1일 • 게재확정: 2022년 3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171-190,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1.202203.171>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은 인도의 석학으로 세계 문헌정보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서관 사상가이다. 특히 그가 1931년에 발간한 『도서관학 5법칙(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은 근·현대 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문헌정보학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좌표가 된다. 랑가나단은 인류 역사와 지식의 발전을 바탕으로 현대의 모든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 5가지를 발표하였으며, 이 법칙들은 문헌정보학의 기초를 관통하는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 덕분에 굳게 닫혀있던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개방되었고, 각각의 책이 그에 맞는 독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학 5법칙은 국내 학교도서관의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한 ‘초중고 학교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체 학교 중 도서관(실)을 1개 이상 보유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99.5%, 중학교 97.4%, 고등학교 99.0%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설치)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되지 않은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정규직 사서교사의 숫자는 단 1,43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국 초·중·고 11,777개교 중 12.1%의 학교에서만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여기에 정규직 및 학교회계직 사서 3,510명까지 포함한다면(강봉숙, 박주현, 2019), 약 42%의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학교도서관 현장에는 사서교사 혹은 사서와 같은 전문인력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전체 응답자 3,126명 중 511명)은 그 이유에 대해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30.5%), ‘학원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24.1%), ‘도서관이 교실에서 너무 멀어서’(20.6%)’ 등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16%의 학생들은 장서와 이용시간의 부족, 접근성의 문제로 학교도서관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학교급별(초·중·고등)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국내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와 교과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장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학교도서관에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장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배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도서관에서는 아직도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들조차 지켜

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초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방법으로 통계분석과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심층조사를 위한 사례로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을 선정하여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제1법칙과 제3법칙에 비추어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1법칙은 5법칙 중 가장 근간이 되는 법칙으로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제3법칙은 책을 인격화하여 책의 입장에서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법칙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선정하였다. D초등학교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로는 2020년 이전까지 사서교사 또는 사서와 같은 도서관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된 적이 전혀 없는 학교라는 점과 2021년 신규 사서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도서관학 5법칙에 맞추어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심층 사례조사에 적합한 점을 들 수 있다. 여타 학교도서관을 사례로 함께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학 5법칙

랑가나단은 인도에서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인도를 독서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1928년 1월 마드라스도서관협회(Madras Library Association)를 창립하고, 이 협회에서 최초로 1931년 『도서관학 5법칙(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을 발간하였다. 그는 영국 유학 중 100여 개의 도서관을 시찰하였는데, 각 도서관마다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건물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학을 전공하였던 그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모든 도서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인 ‘도서관학 5법칙’을 탄생시켰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은 다음과 같다.

제1법칙: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Books are for use)

제2법칙: 모든 사람에게 그의 도서를(Every person his or her book)

제3법칙: 모든 도서에게 그의 독자를(Every book its reader)

제4법칙: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도서관학 5법칙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1법칙과 제3법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제1법칙은 책의 편에서 접근한 것으로 책이 더이상 도서관에서 쇠사슬에 묶여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도서의 이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의 입지는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둘째, 이용시간은 휴일 없이 1년 내내 운영해야 하며, 셋째, 도서관 가구는 이용자에게 알맞은 서가 높이, 안락한 의자 등을 비치해야 하고, 넷째, 도서관에 맞는 특별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제3법칙은 제1법칙과 유사하게 책의 편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칙이다. 모든 책이 그에 어울리는 독자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가에서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개가제로의 전환, 주제순 서가배열, 목록 검색을 통한 도서 찾기, 낭독봉사와 독서 동아리, 도서관 전시와 같은 확장봉사,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 선택 등을 통해 책과 이용자와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2. 선행연구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 국내 학교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장애로 사서교사의 미배치를 꼽았다. 권은경(2003)은 대구 지역 중등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으로 업무부담 과중, 교내외 학교도서관 지원시스템 부재, 학교도서관 담당 교과교사의 문헌정보학 지식 부족 등으로 응답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사서교사 배치, 교과교사 대상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박주현, 변우열(2018)은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존재가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사서교사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사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길고,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더 많이 대출하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숙(2018)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된 문제로 사서교사 배치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개 분야의 비교과 교사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이는 사서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서교사와 교원이 아닌 사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원을 분리하고, 정원 배정을 학생 수가 아닌 학교 수와 학교 규모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종성(2019)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사서교사의 임용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양성되는 사서교사 인원은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확대와 교육대학원 과정의 확대 개선을 주장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구성 관련으로 장서량 및 주제별 구성, 자료구입 예산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김성준, 이병기(2017)는 전국 204개의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4.7권과 27.8권으로 한국도서관 장서 기준(각각 10권, 20권)을 충족하였지만 고등학교는 19.4권으로 기준인 30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주제별 현황에서도 조사 대상 전체 학교도서관에서 문학 자료가 가장 많이 입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주제 분야에 편중된 현상이 드러났다. 김수진(2021)은 광주지역 중학교 도서관의 자료구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명시한 자료구입 예산 기준(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필수 편성)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23.6%나 있고, 예산 부족으로 연속간행물을 구독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구입 기준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자료 유형별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윤정옥(2011)은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제1법칙에 비추어 국방부가 2008년에 <나쁜 사마리아인> 등 23종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분류하여 국방도서관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비판하였다. 그 누구도 사람들이 책을 선택하여 읽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제3법칙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독서 촉진 운동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소개하며, 지역 주민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 한 학교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운영상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도서관 운영의 기본을 확인하고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 비추어 도서관 운영 및 장애요소를 분석한 학교도서관의 연구는 없었기에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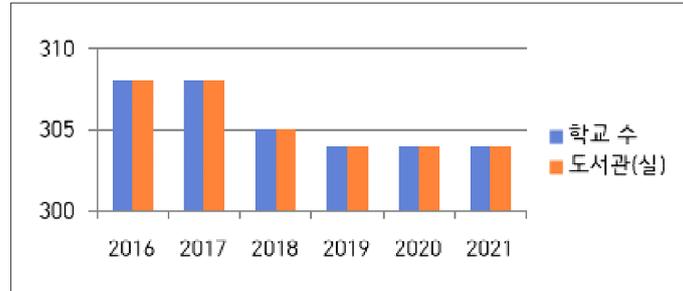
Ⅲ.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한 '초중고 학교도서관 현황' 중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2016~2021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으로 '학교도서관(실) 보유', '사서교사 배치', '장서', '연간 이용', '예산 및 좌석'으로 하여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학교도서관 보유 현황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수는 2021년 4월 기준 304개교이다. 이 중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04곳으로 부산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서와 같이, 2016년도부터 100%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해당연도 4.1 기준)



〈그림 1〉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실) 보유 현황(2016~2021)

2. 사서교사 배치 현황

부산지역 초등학교에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2021년 기준 32개교이다. 32개교에 배치된 32명의 사서교사 중 최근 3년간(2019~2021학년도) 신규 임용된 교사는 17명으로 절반 이상이 최근에 임용되었다. 이는 부산 전체 초등학교 10곳 중 1곳(10.5%)만이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 12.1%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인 사서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역자활센터, 학부모동아리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산지역 학교도서관 운영인력 현황

(2021.12. 기준 / 단위: 개교, 명)

구분	학교 수	도서관 수	사서 교사	사서 직원	교육공무직원			지원사업			기타	합계	인력 배치 학교 수	인력 미배치 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장애인 의무 고용	학교 고용 (무기 계약)	지역 자활 센터	학부모 동아리	퇴직 교직원				
초	304	304	32	0	83	11	2	90	54	18	10	300	300	4
중	172	168	28	0	40	1	2	35	21	5	10	142	142	26
고	143	141	23	6	0	10	6	23	12	6	18	104	104	37
계	619	613	83	6	123	22	10	148	87	29	38	546	546	67

출처: 2022학년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2022)

3. 장서 현황

2021년 4월 기준 부산지역의 304개의 학교에서 총 5,958,742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표 2〉 참조).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장서 수를 재적 학생 수로 나눈 값으로, 학생 1명당 배치되는 장서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2013)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기본자료 수(도서)는 학생 1명당 10권 이상이다.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2021년 1인당 장서 수는 38.7권으로 한국도서관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전국 초등학교 1인당 장서 수인 41권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다. 1개교당 평균 장서 수는 2021년 기준 19,601권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실) 장서 현황(2016~2021)

(해당연도 4.1. 기준)

연도	장서 수	학생 1인당 장서 수	1개교당 평균 장서수
2016	5,361,575	35.5	17,408
2017	5,491,035	36.4	17,828
2018	5,605,359	36.7	18,378
2019	5,749,829	37.0	18,914
2020	5,885,598	38.3	19,361
2021	5,958,742	38.7	19,601

4. 연간 이용 현황

2020년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16년 대비 2,714명(1.8%)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출자 수와 대출 책 수가 각각 13%, 12% 감소하였다(〈표 3〉 참조). 2021년도 통계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이용 통계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비 대출자 수(-80.6%)와 대출 책 수(-77.5%)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도서관이 한시적으로 폐가제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또한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실) 이용 현황(2016~2021)

(전년도 3월~해당연도 2월 기준 / 단위: 명, %, 책)

연도	학생 수	연간 대출자		연간 대출자료	
		대출자 수	전년 대비 증감율	대출 책 수	전년 대비 증감율
2016	151,207	5,014,943	2.4	10,522,793	4.9
2017	150,863	4,931,746	-1.7	10,662,071	1.3
2018	152,775	4,868,187	-1.3	9,788,163	-8.2
2019	155,589	4,361,275	-10.4	9,456,834	-3.4
2020	153,527	4,339,678	-0.5	9,218,420	-2.5
2021	153,921	841,344	-80.6	2,074,271	-77.5

5. 예산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며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필수' 편성하라고 명시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자료구입비가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는 13.7% 증가하였다. 반면, 2021년도에는 자료 구입비가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다. 각 학교에서는 양질의 도서 구입을 위해 자료구입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4〉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실) 예산 현황(2016~2021)

(해당연도 4.1. 기준)

연도	자료구입비	전년 대비 증감율	도서관운영비	전년 대비 증감율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016	2,722,022,800	-0.4%	783,364,530	8.6%	18,002
2017	2,848,209,370	4.6%	1,197,130,670	52.8%	18,879
2018	2,877,940,420	1.0%	977,433,870	-18.4%	18,838
2019	3,089,713,890	7.4%	1,036,108,770	6.0%	19,858
2020	3,513,919,580	13.7%	1,197,401,920	15.6%	22,888
2021	3,355,224,340	-4.5%	1,214,344,690	1.4%	21,798

6. 좌석 현황

좌석당 학생 수는 재적 학생 수를 도서관 좌석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좌석 1개당 몇 명의 학생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교육부, 2020a). 2021년 학생 수는 2016년 대비 2,714명(1.8%)이 증가하였지만, 좌석 수는 오히려 2,122석(11.5%)이나 감소하여 1개의 좌석당 공유하는 학생의 수는 증가하였다. 추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서관 공간을 확장하고, 좌석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학생들이 여유롭게 좌석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실) 좌석 현황(2016~2021)

(해당연도 4.1. 기준)

연도	학생수	좌석 수	좌석당 학생 수
2016	151,207	18,442	8.2
2017	150,863	18,301	8.2
2018	152,775	17,861	8.6
2019	155,589	18,135	8.6
2020	153,527	17,336	8.9
2021	153,921	16,320	9.4

IV.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분석에 이어 심층조사 사례로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을 선정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989년에 설립된 부산 D초등학교는 2021년 4월 기준 61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공립초등학교이다. 학교도서관은 개교 이후 20년이 지난 2008년도에 개관되었다. D초등학교 도서관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D초등학교 도서관 현황

(2021.4.1. 기준)

구분	현황	구분	현황
면적	교실 2.5실(약 165㎡)	장서 수(학생 1인당 장서 수)	18,764책(30.6책)
위치	본관 1층	대출자 수 / 대출 책 수 (2020.3.1.~2021.2.28.)	151명 / 591책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함)
도서관 운영인력	사서교사 1명	예산	자료구입비: 11,093,000원
학생 수	613명		운영비: 3,698,000원
이용가능 시간	08:20~16:20 (2020학년도는 휴관함)	좌석 수(좌석당 학생 수)	47석(13명)

이 장에서는 랭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3법칙에 비추어 부산 D초등학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도서관학 제1법칙으로 본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학 제1법칙은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Books are for use)’라는 법칙이다. 현 시대에서는 당연한 원칙으로 간주되는 제1법칙이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당연하지 않았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랭가나단이 도서관학 5법칙 중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를 첫 번째 법칙으로 내세운 것은 책과 지식을 대중에게 해방하는 의미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로서의 도서관학 제1법칙이 부산의 D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열람방식, 입지, 이용시간, 가구, 직원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열람방식

2008년도에 개관한 D초등학교 도서관은 개가제로 운영하며 많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원하는 자료를 직접 보고 대출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개가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폐가제로 전환하게 된다. 2020년 1학기는 전국적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상 초유의 4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 5월에는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이후에도 D초등학교 도서관은 한시적으로 폐가제로 운영하였다. 폐가제로 운영하는 대신 학급별 비대면 대출 서비스, 즉 '바구니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학급별로 희망하는 도서 장르를 취합 받아 대출된 도서를 바구니에 담아 학급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서관을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1년 사서교사가 배치되면서 폐가제로 운영되던 도서관은 다시 개가제로 전환되었다. 사서교사의 배치와 개가제 실시는 도서관학 제1법칙 적용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 처럼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급별 바구니 도서 서비스는 유지하고 있다. 바구니 도서로 학급별 권장·추천·희망도서 30~50권을 담아 매 학기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 학년 내에서 분기별로 바구니를 교환하여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입지

과거 도서관은 도서의 보존을 위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도심의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물 내부에서도 과거의 대학도서관은 미로와 같이 좁고 어둡고 통풍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여 이용자들의 발길을 유도하지 않고, 도서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열중하였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D초등학교 도서관은 학교 현관을 기준으로 1층 좌측 끝에 위치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등교 시, 편리하게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릴 수 있다. 다만, 교실이 4, 5층에 있는 3~6학년 학생들과 다른 건물에 교실이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다소 멀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김진숙(2015)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밝혔듯이 도서관과 먼 거리에 위치한 학년은 만족도가 낮을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 이용시간

현재 D초등학교 도서관의 공식적인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년별로 요일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학년은 월요일 오전과 수요일 오후에, 2학년은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에, 3학년은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 4학년은 목요일 오전과 월요일 오후에, 5-6학년은 금요일 오전과 화요일 오후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요일에 책을 빌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랑가나단 도서관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급별 바구니 도서'를 제공하고, 대출 책 수를 기존 2책에서 4책으로, 대출 기간 또한 기존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있다.

라. 가구

D초등학교 도서관은 교실 2.5실(약 165㎡) 크기이며, 장서는 18,764권(2021.4.1. 기준)이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가의 높이는 평균 약 113cm이다.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0b)의 2019년 학생표본신체(체격) 검사현황에 의하면 만 7세의 평균 키는 남학생 126cm, 여학생 124.6cm이다. 서가 높이는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적당하지만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소 낮은 감이 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사랑방'이다. 마치 안방에 들어가듯이 신발을 벗고 뜨끈한 바닥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둠학습' 공간에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와 6인용 책상 6개 및 의자가 구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활용 수업은 모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곳에서는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만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 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가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딱딱한 의자와 책상이 대부분이며 폭신한 소파와 같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가구가 없다. 또한 좌석당 학생 수는 13명으로,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통계인 9.4명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마. 직원

D초등학교는 2008년 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2020년까지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적이 없다.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대출 및 반납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퇴직교직원 학교 도서관 봉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매년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한시적 근로자가 대출 및 반납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도서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2021년에 신규 사서교사가 D초등학교에 임용되면서 도서관에 최초로 전담인력이 배치되었다.

한편,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이 10%를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전보 시, 사서교사나 사서가 한 번도 없었던 학교로 발령이 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D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전보 시 이전과 같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도서관학 제1법칙'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이며, 특히 교원으로서 자료선정과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및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중요하다.

2. 도서관학 제3법칙으로 본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학 제3법칙은 '모든 도서에게 그의 독자를(Every book its reader)'라는 법칙이다. 제3법칙은 제1법칙과 유사하게 도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각 도서에 적합한 이용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제3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장치들 즉, 서가배열, 목록, 확장봉사, 그리고 도서선택 측면에서 D초등학교 도서관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가. 서가배열

랑가나단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도서를 결정하는 것은 도서의 크기나 저자명(문학을 제외하고)이 아니라 주제라고 말하며, 도서의 서가 배열은 주제배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도서관 개관 후 13년간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없었던 D초등학교 도서관의 서가는 그야말로 책 한 권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였다. KDC 주류에 맞게 배치는 되어 있지만 동일 주제 내에서는 배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을 찾아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도 해당 자리에 해당 도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근처 서가까지 일일이 찾아보거나 결국 포기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전체 도서를 청구기호 순으로 재배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원하는 책을 청구기호로 서가에서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주제별로 브라우징하며 원하는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

도서관 내 공간 부족으로 언어(700)와 문학(800)의 서가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서가 재배열을 통해 가깝게 위치시켜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구입한 신착도서는 도서관 입구의 정면에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각 서가 위에는 전시대에 추천도서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의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림책의 배가 방식은 기존 청구기호 순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그림책 두께가 얇아 책등의 청구기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 청구기호보다 제목이 익숙한 저학년 학생들이 책을 쉽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목록

학교도서관에서 목록 업무는 DLS(Digital Library System,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다. DLS는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된 표준화된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으로 학교도서관의 수서, 목록, 대출·반납, 장서점검 등의 도서관리업무를 자동화하고, 이용자 독서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DLS는 <그림 2>와 같이 제시된 데이터 항목에 따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비전문가의 입력이 편리하다. 하지만, 목록규칙 및 KORMARC 입력 규칙에 따라 기호 등을 사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는 KOLAS에 비해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기술된 내용이 모두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변우열, 2016).

교육지원청에서 도서구입 관련 안내 공문에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부가서비스(DLS 마크 입력 등) 적정 비용 별도 확보'라는 내용을 포함할 정도로 학교도서관에서는 편목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목록 담당 외주업체 및 목록 작성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이를 검증할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목록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도서를 검색하여 이용하기보다는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주제 서가를 브라우징하여 찾는 경우가 많다. D초등학교 도서관에는 도서검색용 PC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록을 통한 자료검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2> DLS 목록 입력화면

다. 확장 봉사

랑가나단은 각 책이 각각 알맞은 이용자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낭독봉사, 독서동아리, 도서관 전시와 같은 확장봉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도서관학 제3법칙과 같은 맥락에서 D초등학교 도서관 또한 소장하는 다양한 책이 이용자에게 발견되고 독서에 대한 이용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 독서하는 활동을 ‘북모닝(‘Book’과 ‘Good morning’의 합성어)’이라고 명명하고 아침마다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바구니 도서에는 책마다 ‘한 줄 감상평’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부착하여 학생들끼리 감상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책 읽는 재미를 더했다. 독서토론 동아리인 ‘책읽수다’는 ‘책’을 ‘읽’고, 자유로운 ‘수다’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즐거운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로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고 있다. 평소에

책 읽기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독서의 즐거움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학년도에 D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진행한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2021학년도 D초등학교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소개	활용 도서
북모닝 아침독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아침 20분간 조용히 책을 읽으며 아침을 여는 독서프로그램 • 한 줄 감상평 쓰기 활동(4~6학년) 	바구니 도서 활용(학급별 권장·추천·희망 도서 30~50책)
독서토론 동아리 (책읽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을 '읽'고 자유로운 '수다'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즐거운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독서토론동아리 	〈돼지책〉, 〈사라, 버스를 타다〉 〈아홉살 마음사전〉, 〈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
THE 배움 프로젝트 (다미곶터 독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책을 즐겁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담임 선생님은 AI〉, 〈나는 3학년 2반 7번 에벌레〉, 〈아니 방귀 뽀나무〉
저자초청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저자를 초청하여 작가에게 직접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류재향 작가, 김자미 작가 초청 	〈육 좀 하는 이유나〉, 〈천하무적 삼남매〉
찾아가는 북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구연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실감나게 읽어주는 프로그램 	〈운명을 바꾼 가문장아기〉 〈복 타러 간 총각〉
독서 골든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선정도서를 읽고, 책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푸는 독서퀴즈대회 	〈마당을 나온 암탉〉, 〈마사코의 질문〉, 〈아미동 아이들〉
북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여권 여행: 독서 여권에 책 속 멋진 말 필사 • 책 표지 사진 콘테스트: 책 표지를 얼굴에 대고 사진 찍기 • 책 제목 다행시 짓기: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제목으로 다행시 짓기 • 첫 대출자 이벤트: 올해 처음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학생에게 간식 증정 • 연체 지우개 	학생들이 원하는 책
원화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자료 16점 전시 및 전교생 관람, 관람 소감 나누기 	〈푸른 사자 와니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리를 무는 독서 릴레이: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찾아 패들렛에 올리기 	학생들이 원하는 책

라. 도서 선택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3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여 도서를 선택하여 도서관에 구비하였을 때,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초등학교의 2021학년도 자료구입 예산은 11,093,000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도서는 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희망도서로 구입하지만 교과연계도서와 기관추천도서, 신간도서 등도 폭넓게 수서하여 잠재적 요구도 반영하고 있다.

도서의 복본 수량은 1종 1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강조함에 따라 1종 1책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기존 국어 수업에서 책 일부만 단편적으로 읽는 행태에서 벗어나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수업을 통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많은 학교에서 한 학급별로 동일한 책을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급의 인원(20~30명) 만큼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표 8>에서와 같이 D초등학교 도서관에는 한 학급을 넘어서 50권 이상 복본이 있는 도서가 11종이나 있다. 이들의 수량은 총 946책으로 전체 장서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본이 20책을 넘는 도서도 다수 소장하고 있어 장서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도서관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

<표 8> D초등학교 도서관 복본도서 목록(50권 이상)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복본 수량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절	2000	74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1	82
푸르넷 초등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편집부	금성출판사	2001	175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토도북	2006	77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책읽는곰	2008	57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푸른책들	2009	100
어린이를 위한 배려	한상복	위즈덤하우스	2011	56
아미동 아이들	박현숙	국민서관	2013	105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새피	을파소	2014	57
알사탕	백희나	책읽는곰	2017	108
별거 없어!	정진영	낮은산	2018	55
계				946

V. 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심층조사의 대상으로 부산 D초등학교 도서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랑가난단 도서관학 제1법칙과 제3법칙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즉 사서교사의 배치를 확대한다. 부산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는 100%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은 2021년 기준 10.5%로,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 12.1%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점차적

으로 늘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의 경우 사서교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라 하더라도 인사이동 시, 그 학교에 다른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일이 없어 도서관이 다시 방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때, 학교도서관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독서 환경을 구축한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의 좌석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9.4명이고, D초등학교 도서관은 13명으로 좌석 1개당 공유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초등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의자 및 소파나 책과 함께 어우러져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이용하기 편안한 환경과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도서관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 검색용 PC 구축, 와이파이 설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도서관 이용시스템 개선 등과 같이 아날로그 공간과 디지털환경이 어우러진 도서관환경을 구현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공간에서 출입구부터 이용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용재, 2021).

셋째,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장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학교도서관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용 복본도서를 다수 비치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 장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서관 공간이 부족해지고, 불균형한 장서관리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장서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인 장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마다 다수 소장하고 있는 복본 도서를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시 상호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부산 시민도서관 등이 운영하는 ‘학교로 가는 도서관¹⁾’의 ‘책 꾸러미 택배 서비스’가 있다. 이는 학교 교과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 25~30책을 1개월간 택배로 대출해주는 서비스인데, 아직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의 종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각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도 함께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도서를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로 가는 도서관(<https://school.siminlib.go.kr:4430/home/index.php>): 시민도서관 및 부산교육청 소속 공공 도서관이 부산지역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VI. 결 론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은 수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학교에서는 도서관은 갖추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도 없이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과 책의 이용에 큰 장애가 존재한다.

‘모든 도서에게 그의 독자를’이라는 ‘도서관학 5법칙’ 중 제3법칙은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도서관의 각 책이 그에 맞는 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국내 학교도서관도 서가배열, 목록, 확장봉사, 도서선택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책과 이용자를 이어주고 있지만, 도서관 내외부의 장애요소로 인하여 이러한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존재하여 여러 통로를 확보하여도 사서교사의 존재가 사라지면 다시 통로가 막히는 원점회귀 현상도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3법칙의 관점에서 학교도서관 현장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맥락과 구체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부산지역으로 한정하여 초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도서관학 5법칙이라는 기본원리에서 도출한 분석 항목들을 가지고 부산의 D초등학교 도서관을 사례로 심층적인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러 선행연구에서 국내 학교도서관의 문제로 제시한 전문 인력 결핍, 장서의 불균형, 도서관 기능 수행 장애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의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수행하였지만 이 연구가 ‘도서관학 5법칙’이라는 분석틀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제시한 결과는 국내 학교도서관 현장이 안고 있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사서, 교과교사 등 도서관 담당자가 ‘도서관학 5법칙’에 비추어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심층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도서관 1개관만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으로 보는 학교도서관의 운영·공간·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는 사례연구,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협력수업,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 학교도서관의 존재 가치를 증진하는 도서관마케팅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봉숙 (2018). 사서교사와 타 비교과 교사의 배치 비교를 통한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7-47.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027>
- 강봉숙, 박주현 (2019).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39-259.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9.239>
- 교육부 (2019).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a).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b).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권은경 (2003).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47-172.
- 김성준, 이병기 (2017).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1-42.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3.21>
- 김수진 (2021). 중학교 도서관의 자료선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종성 (2019). 학교도서관진흥법시대의 과제와 전망: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59-180.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159>
- 김진숙 (2015).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박주현, 변우열 (2018).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23-147.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03.123>
- 변우열 (2016).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장서관리지침 연구. 세종: 교육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 2022학년도 학교도서관발전시행계획.
- 윤정옥 (2011). Five Laws and Libraries in Korea: Are We in the Right Direction?.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97-308.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297>
- 이용재 (2013). 도서관인물 평전. 부산: 산지니.
- 이용재 (2021). 도서관 경영전략과 마케팅. 서울: 청람.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5368호.
- 한국교육개발원 (2021). 초중고 학교도서관 현황(학교별)(2013-2021). 출처: https://kess.kedi.re.kr/post/6670396?itemCode=04&menuId=m_02_04_03_01&words=%EB%8F%84%EC%84%9C%EA%B4%80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Ranganathan, S. R. (1957).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최석두 옮김(2005). 도서관학 5법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22). 2022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lans of School Libraries.

Byun, Woo-Yeol (2016). A Study on the Status Investigation and Guideline of Collection Management in School Librarie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Kang, Bong-suk (2018).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by a comparison between teacher librarian and other teachers not-teaching the subject mat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27-47.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027>

Kang, Bong-suk & Park, Juhyeon (2019).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239-259.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9.239>

Kim, Jin Suk (2015).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Management.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Jong-Sung (2019).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the era of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with a focus on manpower issu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159-180.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159>

Kim, Su-Jin (2021). Current Status of Materials Selection and Recommendations for Middle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Sung-Jun & Lee, ByeongKi (2017). A survey and analysis of current collection management state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21-42.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3.21>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ibraries (2013-2021). Available:

https://kess.kedi.re.kr/post/6670396?itemCode=04&menuId=m_02_04_03_01&words=%EB%8F%84%EC%84%9C%EA%B4%80

Kwon, Eun-Kyung (2003).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through library teacher's percep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47-172.

Lee, Yong-Jae (2013). *Library Thinkers*. Busan: Sanzini.

Lee, Yong-Jae (2021). *Library Management Strategy and Marketing*. Seoul: Chengra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2019 National Reading Survey.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a). *Statistical Analysis of Education: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b).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9). *The 3rd Master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2019~202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Park, Juhyeon & Byun, Woo-Yeol (2018). The effects of school library personnel on students' reading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123-147. <https://doi.org/10.16981/kliss.49.201803.123>

Ranganathan, S. R. (1957).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Translated by Choi, Suk-Doo (2005).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No. 15368.

Special Committee on Library Standards,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Yoon, Cheong Ok (2011). Five laws and libraries in Korea: are we in the right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97-308.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297>